

【서 평】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사, 2005)

권 용 립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네오콘 프로젝트』는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제에 관한 책이다.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배경과 역사, 그 정치적 실천과 외교적 적용에 관해 분야별로 서술한 논문을 한 데 모은 이 책은 그동안 주로 번역서나 논문 형태로 간간이 나왔던 한국의 신보수주의 연구와 달리 신보수주의에 관한 연구 기획을 거친 집단적 연구 성과다. 한국 신보수주의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중간 결산’으로 볼 수 있는 책이다.

21세기 이후, 특히 ‘9.11 테러’ 이후 노골화한 미국 외교정책의 독선적 행태와 일방주의 때문에 신보수주의를 주로 시사적 개념으로 이해해온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오콘’으로 통칭되는 신보수주의 이념과 정책을 한국의 미국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사실, 또 그 결과물이 시중에 범람하는 번역서가 아닌 전문 연구서 형태로 출간된 것은 일단 반갑다. 특히 이 책은 한국 정치학계에서 미국 관련 기획 연구의 가능성을 한 번 더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 자체를 학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미국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된 지역에 관한 지역연구나 미국 정치학의 주요 관심거리를 주로 공부해온 냉전시대 한국정치학의 미국 유학 풍토를 반성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미국 정치연구에 직접 도전하는 미국 유학생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오콘 프로젝트』는 이 새로운 풍토가 맺은 근래의 결실 중 하나인 셈이다.

제1부는 신보수주의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 제2부는 신보수주의 이념과

그 현실적 적용, 제3부는 현대 미국정치 및 외교정책과 신보수주의의 상관관계, 제4부는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현대 미국 외교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각각 다루고 있으며, 각 부마다 3~4인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각 논문은 편저자가 서두에서 밝힌 대로 ‘화술방식 분석 방법’(narrative analysis, 즉 언술 분석 방법), 사고유형 분석 방법(style of thought analysis, 즉 사고방식 분석 방법), 권력네트워크 분석 방법(power network analysis), 정책 전략 분석 방법(policy strategy analysis)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 분석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런 연구방법은 각 연구자가 다양한 분석 방법 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호한 분석 방법이라기보다는 연구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은 선택의 여지 없이 채택된 분석 방법보다는 그 분석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이 책은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내용은 폭 넓게 다루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 나아가서 현대 미국정치에 관한 고급 연구서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형식상, 이론상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그 내용이 중복된다. 예를 들어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기원과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1부와 2부가 부분적으로 중첩, 반복된다. 물론 이런 중첩 현상은 편저의 속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공동 연구에 따른 단행본의 출판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 진행 및 편집 과정에서 연구자 상호간의 점검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론적으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그 방법론과 내용의 완성도에서 편차가 있다. 그런데 이 편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논문은 신보수주의라는 현상 자체는 충실히 다루면서도 신보수주의를 미국정치의 전반적 틀 속에서 설명하려는 시각과 노력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신보수주의처럼 현재 진행중인 정치 이념을 분석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실천을 서술하기 이전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특정 이념이 작동하는 ‘정치의 영

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신보수주의를 미국정치의 장기적 추세 즉 '전반적 추세'로 보느냐, 아니면 워싱턴 정가와 정책집단을 매개로 작동하면서 여타 정치이념과 갈등하는 '우세 이념'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신보수주의를(남부를 제외한) 현대 미국을 1930년대 이후 '리버럴'한 나라로 이끌어오면서 미국 정치의 전통적 스케일을 일신한 현대 미국 리버럴리즘과 같은 한 시대의 추세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미국정치에 관한 공동 연구라면 선결했어야 할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록 논문이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기원은 설명하면서도 미국정치의 장기적 추세와 신보수주의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논문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신보수주의를 '포스트 뉴딜' 시대 미국정치의 장기적 추세로 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1960년대의 급진적 리버럴리즘에 대한 환멸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적 '네오콘'의 정책 이념, 즉 부시 행정부를 장악한 공격적 지식인과 정책 집단의 이념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신보수주의에 관한 '한국 정치학자들의 연구'라는 이 책의 의의가 퇴색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의 개별 의도와 무관하게 암묵적으로 전체된 이런 경향은 신보수주의를 미국정치의 장기적 지도 이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리버럴한 미국정치학계'의 연구 경향을 복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보수주의의 의미와 작동 영역을 좁게 설정하면 신보수주의에 대한 미국 학계의 해설을 계몽적으로 소개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미국 신보수주의와 현대 미국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답은 찾기 어렵게 된다.

현재 신보수주의의 제도적 촉매 역할을 하는 미국 공화당의 이념은 크게 우경화했지만 미국 국민 전체의 이데올로기 분포는 한 세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정치학계의 '통계적 결론'이다. 그러나 이 통계적 결론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우경화한 미

국 정당정치 of 추세(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동향)와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득세가 하나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이 순환 고리를 강조하는 연구 논문이 구색상 추가되었더라면 이 책이 미국정치 연구서로서 갖는 가치도 더해졌을 것이다. 물론 미국정치의 전부를 신보수주의 하나로 다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정치의 '중원'인 정당정치의 제도적 조건과 판도 변화는 신보수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도 신보수주의를 네오콘 지식인 집단과 정책관료 집단의 '동호인 이데올로기'처럼 단정하게 되면 신보수주의를 미국 정당정치의 전반적 추세 변화와 연관시켜 규명할 가능성 또한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예를 들어 '정당정치의 변동과 신보수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제8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이 논문의 실제 내용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정책이념이 동반 우경화(수렴)하는 매개체로서 신보수주의를 논하고 있을 뿐이다. 즉 미국 정당정치의 전반적 틀의 변화와 신보수주의를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오늘날 미국정치 관측통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은 공화당의 우경화와 공화당 핵심세력의 우경화는 이미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동향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대담해졌고, 이것은 공화당의 '선거 우세'가 보장된 미국정치의 물적, 제도적 조건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물적, 제도적 조건이 선거를 매개로 작용하면서 미국정치와 여론의 역학에 다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신보수주의 지식인 집단의 공세, 공화당의 조직 강화, 재계의 공화당 편향성 심화, 공화당 핵심 세력의 우경화, 남부의 공화당 지지화('신 남부'의 등장), 우익 기독교 세력의 정치세력화 등 1980년대 이후 본격화한 미국 정치의 '신 우경화'를 신보수주의와 함께 엮어 볼 때 가능하다. 이 책에서 기독교 우파의 정치세력화, 남부의 정치지형 변화와 같은 현대 미국정치의 독립 변인들을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득세와 연결시킨 관점의 연구가 빠져 있는 것은 그래서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미국 연구자라면 미국정치와 외교사를 묶어 관찰하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미국 정치의 속성상 미국 외교는 미국

정치 상황을 그대로 투사한다는 진리다. 즉 미국정치를 분석, 예측하는 일은 결국 미국 외교를 분석, 예측하는 일과 같다. 이 점에서 책의 제4부는 ‘신보수주의 외교전략의 실제’에 할애되어 있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신보수주의를 연관시킨 논문이 그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 충분히 타당한 문제의식이다. 다만 신보수주의를 미국 외교전략과 연관시키다 보면 외교현안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신보수주의와 기계적으로 연관짓게 되고, 자칫하면 미국 외교정책 전체를 신보수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집에 가두어버리기 쉽다. 물론 지금 미국 외교가 신보수주의의 일방주의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200년 넘은 미국 외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의 대두 이후, 또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득세 이후 미국 외교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했고 또 어떤 측면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보수주의 동아시아정책 기조와 1900년 이래 시작된 미국의 전통적 동아시아정책 기조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독립혁명 이후 미국 외교의 전통과 신보수주의 미국 외교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종합 연구서라면 색인과 색인을 만들기 위한 선결 작업으로서 용어 해설 목록을 갖추었어야 했다. 색인 없는 책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신보수주의 연구서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신보수주의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 미국과의 거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미국과 가까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미국에 대해서는 ‘가장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냉전적 한국 정치학의 모순을 자각한 정치학계의 공동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공동 연구야말로 미국 연구의 역량과 역사가 아직 일천한 한국 정치학계에 미국을 하나의 ‘대상’으로 객화시켜 보는 원숙한 시선을 확립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